

휘발유, 49일만에 상승세 전환

ℓ 당 1998.65원으로 2.28달러 올라 ... 국제유가 강세로 상승압력

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이 49일만에 상승세로 전환됐다.

석유제품 가격정보 사이트인 오피넷에 따르면, 1월3일 전국 주유소의 자동차용 휘발유 평균가격은 전일대비 ℓ 당 0.53원 오른 1933.68원을 나타냈다.

휘발유 평균가격은 2011년 11월16일부터 2012년 1월2일까지 48일 연속 하락하면서 ℓ 당 50원 가량 떨어졌다.

서울지역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격도 1월3일 기준 전일대비 ℓ 당 2.28원 오른 1998.65원으로, 2011년 10월24일 2067.26원까지 치솟은 후 하락국면에 접어들어 12월16일 1999.16원을 형성했으며 1990원대에서 보험세를 유지했다.

휘발유 판매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된 것은 정유기업의 공급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.

12월 마지막주 정유기업의 휘발유 공급가격은 전주대비 ℓ 당 13.5원 오른 888.4원으로 2주만에 상승세를 나타냈다.

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미국의 경기지표가 호조를 나타내면서 국제유가 및 국내 공급가격도 강세를 보이고 있어 석유화학제품의 국내 소비자가격도 상승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1/04>